

디지털리터러시 환경에서의 사진미디어 고찰

-장애인 문화지평을 위한 사진리터러시 중심으로-

The consideration of photo media in digital literacy-environment
-the focus of photo literacy with the aim of the cultural prospects for the disabled-

주저자 : 유기상

목원대학교 영화영상학부 전임강사

Ryu ki-sang

Mokwon university

공동저자 : 김종근

송실대학교 대학원

Kim Chong-ke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공동저자 : 이원섭

송실대학교 대학원

Lee Won-sub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1. 장애인 문화지평을 위한 사진리터러시의 의의

2. 장애인 사진리터러시 고찰

- 2-1. 장애인 사진리터러시의 개념
- 2-2. 장애인 사진리터러시의 문화 기능

3. 장애인 사진리터러시 방법론

- 3-1.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위한 사진리터러시
- 3-2. 영상언어의 해석과 선택을 위한 사진리터러시 프로그램
- 3-3. 장애인 사진리터러시 프로그램

4. 사진 미디어리터러시의 제언

참고문헌

논문요약

오늘날 미디어를 이루고 있는 디지털 환경은 우리들에게 일상생활뿐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 방면에 이르기까지 생산자적 소비자의 소통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흐름은 웹 미디어를 영상세대인 웹 2.0 세대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매체로 변모토록 하였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이용하는 웹 기반의 디지털 소통구조는 장애인의 예술 문화와 사회 참여의 소통 격차를 줄이는데 일정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예술문화를 활성화하였으며 사용자의 미디어 생산자, 수용자, 유통자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의해 생산·소비하는 정보와 노출되는 이미지를 다루기 위하여 장애인은 어떤 종류의 지식, 창의력, 리터러시 능력, 그리고 인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정보 전달 중심의 미디어 소통 구조 속에서 장애인의 사회적인 요구는 열악한 사회 인프라에 의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장애인의 실천적 참여 활동은 적지만,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함양은 다수의 소통방식인 시각 언어에 대한 리터러시 능력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소통 활동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기반의 소통에 대한 보다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공유를 위해 정보의 균형 있는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미디어에 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여야 하며 장애인 문화지평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 사진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제어

디지털미디어, 사진, 미디어리터러시

Abstract

Digital environment forming today's media has produced the communication structure of producer like consumers not only in our daily life but also in society, culture and arts. This trend has resulted in the transformation of Web media into the medium of 'education'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on the life of the Web 2.0 generation, who is the multimedia generation. In particular, web based digital communication structure using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has played certain roles in narrowing communication gaps in the disabled's arts, culture and social participation.

Such environment has invigorated active social participation of underprivileged class and brisk artistic culture, and restructured the new relations among producers, consumers and distributors.

What kinds of knowledge, creativity, literal abilities and personality are required to the disabled in order to deal with information and images produced and consumed in digital media environment at present? In the media communication structure centering on informative communication, social demands of the disabled haven't been conveyed by poor environment. Thought practical participation activities of the disabled have not been enough yet, the disabled's communication-building should be pursued the literacy ability through education, which is a way of the visual language

Now, what is the important thing is awakening consciousness and responsibility for the disabled's communication activities. Based on it, we need to judge and select information in a balanced way for more conscious and rational sharing of media based communica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fer the disabled to media continuously and to raise the necessity of photo literacy in the discussion for the prospects of culture.

Keyword

Digital Media, Photography, Media literacy

1. 장애인 문화지평을 위한 사진리터러시의 의의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문자리터러시뿐 아니라, 미디어환경에 따라 시각리터러시, 컴퓨터리터러시, 네트워크리터러시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확대 통합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리터러시는 디지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리터러시의 기술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소통구조의 맥락에서 시각리터러시, 네트워크리터러시 등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기반의 소통에 대한 보다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정보의 균형 있는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이는 시각문화의 가치를 판별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안목과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방안들이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 안에서 누구나 쉽게 시각적인 다양성, 일상적인 체험을 편리하게 기록하고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은 분명 매력적인 수밖에 없다.

현대 영상미디어의 시각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진은 160여년이 넘도록 이미지를 보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에 기여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영상의 기호를 부호화, 해독화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진리터러시 교육내용이 필요한 것이다.

사진읽기, 사진영상제작, 카메라사용법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창조적이고 분석적인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문자언어 이외의 다양한 표현 언어들 중에서 주로 시각적인 표현 언어들이 갖는 상징체계와 구조를 분석해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영상언어의 의미에 접근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디지털리터러시 환경에서 적극적 교육 수단으로서 사진미디어가 인지해야 될 점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미디어를 통해 표현해 낼 수 있는 소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는 매체에 의해 매개, 전달되고 재생산되는 미디어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소통 구조와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새로운 정보에 대해 판단과 선택을 위한 사고의 도구, 탐구의 도구,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처럼 학습자 중심교육과 문제해결학습을 통해 다각적인 견해에 대한 접근은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다원주의와 합리성, 그리고 통찰력을 기르는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약자로 구분되는 장애인에게 미디어 리터러시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신체적 능력의 획일적인 조건에서 차별받았으며, 그 소통 구조 속에서 보편적인 배려 또한 받을

수 없었다. 오랜 기간 차별과 소외의 벽을 넘지 못한 반복적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시대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은 동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이 디지털 격차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원인이 된다.

이제, 수동적인 생산자에서 주체적인 생산자로 변화할 수 있는 장애인의 미디어문화와 관련하여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리터러시는 학교, 가정, 사회 등 어느 곳에서나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진리터러시의 구조와 방법을 통해 과거 개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사진의 비장애인 대상 기술 교육중심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장애인 시각의 다양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진교실의 비평적 사진읽기, 재미있는 창조적 사진 만들기, 사진 영상언어를 통한 사고의 재구성 등의 사진리터러시가 장애인에게 교육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 미디어교육 방법론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환경에서의 사진 미디어를 고찰하여 장애인 사진의 새로운 문화지평을 위한 이미지 교육의 도구로 적극 이해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즉,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디지털리터러시 환경에서 사진미디어의 해석이 아니라, 이에 접근하는 장애인 사용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한 관점에서 사진 리터러시의 개념과 활용들을 살펴보고, 미디어리터러시의 프로그램으로 사진리터러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장애인 사진리터러시 고찰

2.1. 장애인 사진리터러시의 개념

'미디어리터러시'란 개념은 주로 북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교육'이란 용어는 영국을 비롯한 호주 등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미디어를 비판적·주체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¹⁾

'미디어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의 한 영역으로 미디어의 언어와 상징을 강조하며 여러 유형의 미디어에 접속하고 그 내용을 분석·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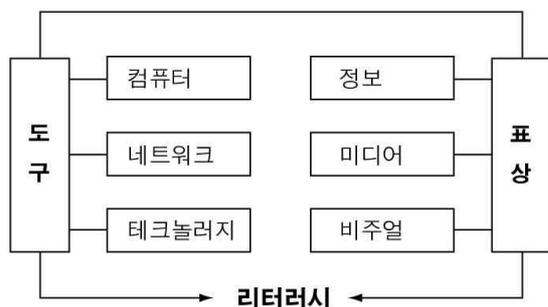
또한 북미에서는 '미디어리터러시'나 '비판적 시

1) 김기태 외 저, 『미디어교육과 교과과정』,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p6.

칭'기술은 보다 구체적인 복잡한 개념으로 정의되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은 영상미디어의 언어와 문법을 깨우치는 것이다.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평가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때, 영상미디어의 경우 시각적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미디어리터러시'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분석·평가·생산하는 능력, 혹은 사회의 모든 상징체계(2)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미디어리터러시'란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미디어가 내보내는 정보를 구성, 비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사용·표현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와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총체적인 수용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표 1] 리터러시 개념의 분류



이와 같은 미디어 교육의 개념 차이를 교육 분야별로 영역화하면 미디어 이해, 미디어 읽기, 비판적 시청능력 함양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리터러시의 개념을 [표 1]과 같이 도구와 표상으로 분류하였다.

[표 1]을 근거로 이들 각각의 리터러시는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간에 다각적으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 될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사진미디어의 활용은 사진이 영상언어의 근간을 이루

2) Salomon(1984)은 정보를 제시, 저장, 조작하기 위해서 상징(symbols)을 사용하며 미디어가 사용하는 상징은 인간의 인지 과정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상징체계를 다루는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상징은 형식적 규칙이나 통일된 약정에 따라서(conventions of coherence)문자나 부호화 요소들이 결합되고 배열되어 상징적 도식(symbolic scheme)이 되며 이 상징적 도식이 지시 대상에 상응하게 될 때 이를 상징체계라 한다. 즉, 문자, 영상, 음성 등 미디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지시한다면 상징이 되고, 상징들이 일정한 규칙이나 약정을 토대로 하여 체계로 구조화된 것을 상징체계라 할 수 있다.

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 편집, 비판적 이미지 읽기, 참여적 사회예술문화 운동 등 시각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통합적 리터러시를 이해 할 수 있다. 바로 장애인 사진리터러시의 개념은 장애 유형별 영상 미디어 테크닉을 통해 미디어의 접근성과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함양을 하는데 있다. 또한, 장애인의 예술문화 참여와 문화지평을 넓히기 위한 모색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에게 사진미디어라는 도구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촬영기술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촬영에 사용되는 기술과 표현방법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체적인 장애 유형의 파악을 통한 기술교육은 비장애인 기술 교육 중심의 잘못된 사진미디어의 접근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제언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사고의 개념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미디어의 시각체계에 근간을 이루는 사진을 통해 장애인이 지금의 다양한 시각적 문화양식들을 이해하고 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문화적·사회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장애인 사진리터러시의 문화 기능

전통적인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자체의 소통적 측면에 대해 다루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교실 - 빛을 보는 아이들 -교사모임(3)은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사진교실은 미디어교육이 '문화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교육적 가치를 두고 시작되었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은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가치관, 태도의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구성원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능은 바로 문화의 전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문화가 교육의 목적과 자원이 된다는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장애인 사진리터러시의 문화 기능과 활용을 보는 시각은 사회적 소통, 사용자 문화, 미디어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회적 소통 측면에서의 미디어에 대한 기능과 활용은 모든 정보가 미

3) 1997년 사진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진가들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 영상 이미지의 주요 소비자인 아동과 청소년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인 예술문화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지평을 넓히기 위한 소통으로 사진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사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활동을 위한 단체이다.

디어를 통해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장애인 사진리터러시의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고, 정보습득 및 기술습득에 있어 보다 비판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용자 문화 측면에서의 미디어에 대한 기능과 활용은 장애인 사용자가 미디어의 접근성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장애 문화지평을 창조하는 기능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적극적인 예술 사회참여의 증대를 위해서 사진 리터러시 학습을 통한 미디어의 접근성과 소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이 되고 있다. 세 번째, 미디어 교육 측면에서의 미디어에 대한 기능과 활용은 미디어 속성에 대한 이해, 미디어를 대하는 장애인의 학습이 필요하다. 학습을 통한 미디어에 대한 사용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메시지의 선택이 불가능하며, 무조건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교육적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 측면에서 미디어가 제시하는 정보 및 지적기술·기능·태도 등을 습득하는데 보다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수용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하지만,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미디어에 대한 기능과 활용은 매우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보 활용과 평생교육으로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시급하게 정책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들이 좋은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미디어 경험을 통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은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또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이미지를 열어주는 열쇠이고 관문이며, 삶의 양식이다. 영국의 대표적 문화 연구가 윌리엄스는 문화를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라고 정의했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를 정의하자면 디지털 양식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⁴⁾

디지털이란 말은 손가락을 뜻하는 라틴어 'digitus'에서 숫자 'digit', 2진법을 의미하는 'digital'이란 단어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모든 계산을 '0과 1' '켜짐과 꺼짐(on-off)' '있음과 없음'의 구조로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오늘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대표적인 예가 컴퓨터에 의한 체계이다. 또한 일상에서 접하는 기술적 변화로는 LP(Long Play)에서 CD(Compact Disk)로, 아날로그 텔레비전에서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아날로그 영화를 디지털 필름으로 변경하여 DPS⁵⁾로 배급할 수 있게 된 변화 등이 대표적

4) 박은희 편저, 『디지털마니아와 포비아』,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7, p243.

인 예일 것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 사진의 발명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었다.

사진 등장 이후부터 사진의 사회적인 역할과 더불어 사진을 하는 사람들의 사진 매체에 대한 인식과 사진술 또한 급격하게 바뀌었다. 원근법의 발전이 새로운 시각적 재현 수단을 인식하지 않고는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적 변화를 상상하기 힘든 것처럼 사진은 우리의 시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미디어 문화를 낳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⁶⁾

지난 160여 년 동안 사진은 인간의 삶이나 행위의 모든 측면을 기록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처럼 짧은 역사 동안에 사진매체는 시간과 공간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해 왔다. 게다가 사진매체는 인간의 생활이미지를 재현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영향력이 있는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사진교실이 말하는 '실천적 사진문화'란 일차적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방식을 수용자 소비형식에 있어서 생산 형식으로 바꿈으로 생산되는 문화적 반응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⁷⁾

이것이 문화로 이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컴퓨터 체계와 그에 따른 여러 시스템 변화, CD, 정보통신기기, 휴대폰, 개인컴퓨터(PC), 인터넷(Internet), 통신위성, 광섬유, HD-TV, 디지털 영상 등과 영상이미지를 공학적으로 처리하는 영상공학, 영상신호처리(Image Signal Processing) 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⁸⁾. 이것은 따라서 일차적으로 의사소통체계에서의 기술 변화를 의미하며, 이차적으로는 이에 따른 모든 의사소통, 정보교환방식에서의 체계와 구조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의등장이 단순한 기술적 변화 내지 의사소통체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5) Digital Projection System: 인터넷이나 인공위성으로 영화를 디지털(digital) 부호화하여 전송과 판매, 배급을 담당하는 체계를 말한다. 브로드캐스터(공중파방송사)에 대항하는 웹 캐스터의 등장은 이러한 체계에 힘입어 가능해진 현상이다.

6) 테렌스 라이트, 이주영 역, 『사진이란 무엇인가』, 눈빛, p12.

7) 커뮤니케이션 기술공학은 정보, 음악, 사진을 재생산하고 분배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다른 형태의 코드 시스템을 이용한다. 신문은 활자를, 영화는 필름의 이미지를, 방송이나 전화 역시 그러하다. 이 모두는 아날로그 코드이다. 이러한 코드가 반도체를 이용한 디지털 코드로 재구성되는 것이 디지털 변화이다. 아날로그 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변환기계가 필요하다. 전화기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뎀이 대표적인 변환기계이다.

8) 잭 라일·더글러스 메클로드, 강남준·강태영 옮김,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 미디어』, 한나래출판사, 1996, pp35-144.

않는다는 데 있다.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일어난 초기의 기술체제와 이들의 신호처리형식은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문화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디지털 방식에 의한 디지털 문화가 기술적 변화 내지는 의사소통체제의 구조 문제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조 안에서 실천적인 장애인 문화 변화에 대한 성찰 없이 디지털 문화만을 거론하는 것은 디지털미디어환경의 본래적 의미를 간과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자원봉사 활동, 사회를 감시하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활동이 바로 그렇다. 생산자적 소비자의 변화는 바로 실천적인 참여와 수렴으로 발전하는 문화적 토대인 것이다.

이제까지 비장애인도 '소비자'로서 규정되었던 사람들 속에서, 아마추어로서 '생산자'가 된 사람들 (프로추어⁹⁾, 프로슈머¹⁰⁾, 프로슈밍¹¹⁾, 크리슈머¹²⁾)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홈페이지 개설이나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장애인 문화지평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비디오 저널리스트나 온라인 저널리즘, 또는 케이블방송국이나 로컬 방송국에서의 퍼블릭 액세스 (Public Access)¹³⁾같은 매스 미디어로서의 방송국과 풀뿌리적인 새로

9) 프로추어(proteur)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과 아마추어(amateur)의 합성어로 전문가와 같은 식견·실력을 갖춘 아마추어를 말한다. 처음에는 취미 이상으로 사진 찍기를 즐기는 디지털일안리플렉스(DSLR)카메라 사용자를 주로 지칭했다.

이 용어는 영역을 막론하고 사용되며 최근에는 사용자제작 콘텐츠(UCC) 업체들이 다른 사업자와 차별화하기 위해 프로추어가 제작한 콘텐츠(PCC)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삼 주목받고 있다. 프로추어가 제작한 콘텐츠는 대다수 UCC 사이트 사용자가 기존 콘텐츠를 짜깁기해 야기되는 콘텐츠 저작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10) 프로슈머(prosumer)는 생산자(producer) 혹은 전문가(professional)에 소비자(consumer)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프로슈머의 개념은 1972년 마셜 맥루언과 베링턴 네빗의 『현대를 이해한다』(Take Today)에서 "전기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처음 등장했으나,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1980년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최초로 사용했다.

11) 프로슈밍(prosuming)이란 최근 엘빈 토플러가 쓴 책 "부의 미래"에 나오는 용어로 화폐경제 안에서는 제품, 서비스, 또는 경험을 생산해서 팔고자하는 사람들을 생산자(producer)라하고 그 과정을 생산(produc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공식 경제 즉,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프로슈밍이라고 한다.

12) 크리슈머(cresumer): 소비를 통해 필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소비자로서 음악, 미술, 문학 등 주로 창작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생산에 참여하는 이미지를 가리킨다.

13) 한국에서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음부즈맨프로그램·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 등 여러 용어로 쓰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

운 미디어 실천을 매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디지털카메라·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전문가 집단이 아닌 장애인도 기존의 미디어보다 빠르고 의미 있는 정보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의 복지와 열악한 사회 인프라를 고발하기도 하며,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문제들을 여론화 시키고 형성하면서 비판하는 생산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3. 장애인 사진리터러시 방법론

3.1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위한 사진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¹⁴⁾은 학습과 실습을 통해 미디어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리터러시의 필요성이라 하겠지만,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미디어의 기술적인 측면을 잘 다룬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소통의 역량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컴퓨터의 등장은 기존의 문자, 디지털 언어를 주축으로 한 소리, 영상 등 모든 언어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모두 통합하는 커뮤니케이션능력¹⁵⁾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커뮤니케이션능력'의 개념이 미디어리터러시를 위해서 중요한 목적지향성들과 강조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능력'의 개념은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적인 매개의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발전시켜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상되고, 배우는 사용자들

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퍼블릭 액세스의 전반적인 의미를 담을 수 없다. 퍼블릭 액세스는 일반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자체 프로그램, 시청자가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시청자의 의견 또는 평가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 캐나다 국가영화 진흥국(NFB)이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가난에 관한 문제점을 비디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데서 유래하였다. 현재는 미국·독일 등 공영방송이나 케이블텔레비전 유선방송·인터넷방송 등 개방된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하고 이를 보장하는 일체의 구조 또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14) 서로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 이해하고 또 반응하여 의견을 다시 전달한다고 했을 때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미가 잘 전달되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15) 커뮤니케이션능력(Kommunikation-kompetenz)이라는 용어는 J. Habermas의 커뮤니케이션적 능력(Kommunikative Kompetenz)의 개념을 D. Baacke가 인용함으로써 처음으로 학술용어로 수용되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능력의 개념은 다시 N. Chomsky가 제시한 언어능력(Sprachkompetenz)의 개념에 근거한다.

이 미디어접근을 통해 스스로 개발을 위한 일련의 능력들이다. 즉 생각, 학습 그리고 지식습득 등은 사진 규정된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것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능력'은 사람들이 미디어에게 단순하게 내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갖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미디어들을 대할 수 있음을 말한다. 능력개념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터득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교육적 가치이다.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능력'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로서 사진 리터러시는 매우 적합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미디어의 시각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진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재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계적 재현 체계를 갖춘 미디어의 기본 교육을 위한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진교실¹⁶⁾의 사진읽기, 사진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하고 재미있게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통합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에 의한 소통 체계는 주로 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충분한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시각 이미지의 소통체계는 언어체계보다 무의식적인 차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함양은 사진 리터러시를 통한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이미지 읽기와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3.2. 영상언어의 해석과 선택을 위한 사진리터러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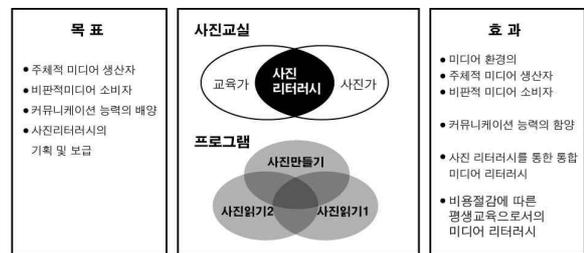
미디어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량생산되는 이미지의 무비판적 수용이 지니는 유해성과 올바른 이미지의 활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사진 리터러시가 필요하며, 다양한 이미지에 대한 기초 교육과정으로써 사진을 통한 영상 교육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은 표현과 소통 영역보다

16) 1997년 사진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진가들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 영상 이미지의 주요 소비자인 아동들과 청소년, 장애인들에게 사진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사진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사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다.

는 단편적인 기술습득에 치우치고 있다.

사진교실은 이러한 영상 교육의 필요성과 어려움에 공감한 교사 및 사진가들이 모여 아동·청소년·장애인에게 영상 이미지를 교육하는 데는 우선 일반적으로 소통되고 있는 영상 이미지를 읽어 봄으로써 영상 이미지를 이해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영상 이미지로 만들어 표현했다.

사진이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라면 첫째, 장애인이 사진의 생산자가 되어 사진을 직접 찍어보는 것이다. 둘째, 사진의 소비자가 되어 장애인이 사진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를 재미있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면서 사진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림 1] 사진교실 교육 목표

사진교실의 교육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갖는데, 그 첫 번째는 독자로서 사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리 준비한 사진과 자신들이 제작한 사진을 가지고 학습자들이 서로 토론해 봄으로써 주체적인 이미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목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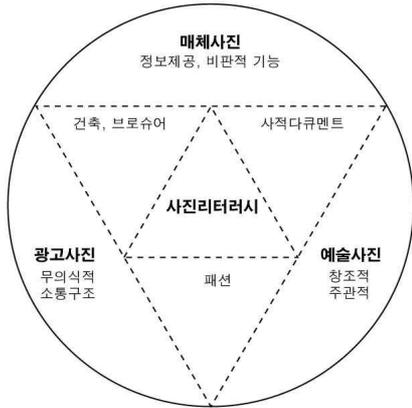
사진교실의 사진리터러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진읽기 I'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모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 - 매체, 광고, 예술 등 - 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된 사진들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형식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진의 의미들을 파악하여 영상 이미지의 소통구조에 익숙하게 한다.

사진에서의 미묘한 어법상의 차이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다. 특히 문화적 경험치가 낮은 경우 그 경험 치에 대한 부가 설명까지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좀 더 즉시적인 사진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문화와 관련된 사진읽기는 교사의 사진에 대한 표현기법 설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때 장애인에게 사진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특히 언어가 아닌 시각적(또는 사진적) 형태로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읽기 방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본적인 미디어리터러시의 이미지 읽기를 위한 사진교실의 프로그램이다.



[그림 2] 사진읽기 프로그램

사진읽기에서 이미지화 된 사건을 언어로 표현한 서로의 해설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은 미디어 참여의 언어적 표현 능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대중매체 사진들은 예술사진을 모방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효과적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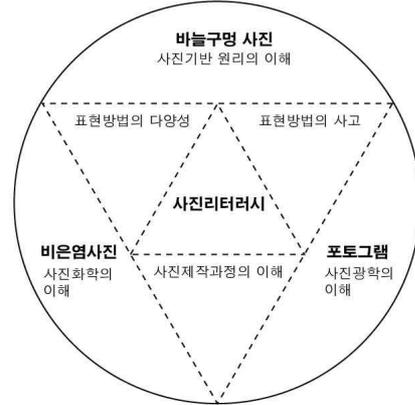
우선 사진은 시각 매체이자 현실을 반영하는 매체이기에 조형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진읽기를 해 볼 수 있다. 특히 언어가 아닌 시각적(또는 사진적) 형태로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읽기 방식은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미지 읽기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사진읽기II'는 위에서 읽은 '사진읽기 I'를 근거로 하여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경험 등을 이미지 생산자로서 사진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완성된 사진들을 친구들과 함께 다시 읽어보고 사진가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게 한다.

촬영해 온 사진을 평가하는 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결코 한 장의 사진만으로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여러 장의 사진들 속에 보이는 스타일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은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사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확고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사진이 다른 사진들과는 다르게 보이는 상대적 독특함을 좋은 사진을 고르는 데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개성을 표출시키고 표현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것은 자아에 대한 자신감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도전이다.

물론 위의 기준만으로 선택된 것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과



[그림 3] 사진 만들기 프로그램

정에서 장애인이 촬영하고자 하는 동기를 파악하고 표현 방법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장애 유형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사진교실의 사진읽기II'는 생산자로서 장애인 스스로 사진을 만들면서 실제로 주제와 소재를 응용해야 하므로, 이 시간에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제와 소재를 분리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소통 가능한 사진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주제와 소재를 머리로는 구분하고 이해하였지만, 사진이라는 매체에서 적용하고 구체화 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함께 토론하고 실제 촬영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이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진리터러시의 교육적 연속성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사진읽기 프로그램은 지각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미디어 적용 원리로서 비판적인 이미지를 해석하여 발언하는 사진교실의 교육적 목표를 위한 리터러시이다. 이러한 사진리터러시 학습의 과정에서 사진미디어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함양을 위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시각에 대한 전형적인 틀을 구체화 시킨다는 면에서 창의력에 확장을 막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기계적인 재 매개를 하는 카메라의 특성상 선택된 쇼트의 크기와 움직임은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한 읽기와 토론은 그들이 더 정확하게 관찰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비록 우연성에 의한 촬영이었다 하더라도 사진읽

기를 체험하게 되면 다른 이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준치에 대한 소통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사진읽기' 체험들은 장애인에게 더 세분화되고 더 미묘한 뉘앙스를 가진 방식으로 보고 지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 경우 역시 생길 수 있다.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촬영 주제를 주었다 하더라도 사진읽기를 통해 자신이 발견한 혹은 발언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감출 수도 있다. 그것은 학습을 하는 구조 속에서 누구의 것이 옳다. 라고 잘못 인지하게 되는 일반적인 학습구조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마추어 집단에서 풍경에 대한 시각을 저명한 사진가의 일반적인 촬영 정보에 의해 표준화 되는 경우처럼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상호소통적인 학습구조 속에서 진행이 필요한 것이다.

미디어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정보로부터 얼마나 자신의 시각과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의 함양을 위한 장애인 사진 리터러시가 필요한 것이다.

학습된 지각은 소통을 통해 타인에게 재생산된다. 후고 퀴켈하우스(Hugo Kukulhaus)가 말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본다".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는다". 퀴켈하우스는 발생학을 근거로 기관은 기능을 위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기능에 의해 생겨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각된 내용은 의사소통 과정의 일부를 이룬다. 그 내용들은 의미를 교환하고, 서로 이해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언어와 의사소통에 의해 인간은 상대자와 상호 작용에 들어간다.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을 남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참여가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된다. 공동체는 사회적 인간(homo social)의 근본적인 욕구에 부응한다.

사진읽기를 통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참여 역시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방통행으로만 작용하는 학습구조 안에서는 장애인은 미디어 환경에서 고립 속에 내던진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진읽기' 토론을 진행하는 교사는 이러한 면에서 장애인에게 비판적 자세를 갖게 하는 사진리터러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점¹⁷⁾이 있다. 첫 번째로 경쟁, 등급, 시험 등의 평가를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자율학습 및 자율 평가를 고양시

켜 적극적인 독자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토론의 진행은 가급적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토론을 진행하는 데 전문가나 통제자로 행동하기보다는 연장자로서, 경험이 있는 상급 동료로서 처신함이 바람직하다. 교사의 관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이 교사보다 더욱 솔직하고 편견 없이 그대로 이미지를 수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토론은 교사나 특정학생 등 개인 중심이 아닌 그룹 중심의 공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 내용보다는 토론 과정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사진교실의 장애인 사진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습하는 데 기존의 틀과 더불어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멀티 리터러시의 기본 교육 안으로 미디어 학습을 보조하고 강화하는 적절한 리터러시이다.

세 번째, '재미있는 사진 만들기'는 부가적으로 사진의 처리과정을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이 과정은 매체로서의 사진을 제대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 소통구조 속에서 영상언어에 대한 해석적 이해와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로서 사진 리터러시이다.

시각 사고의 근간을 이루는 창의력과 다양함을 갖기 위해 사진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진술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시각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3. 장애인 사진리터러시 프로그램

사진교실이 진행하는 장애인 사진리터러시는 일차적으로 사진교실에서 진행하는 '사진 읽기'와 '재미있는 사진 만들기'를 중심으로 초급 사진리터러시를 진행을 하고 중급교육 과정으로 '포토에세이'를 진행한다. 장애인 사진리터러시 목표는 장애인문화지평운동의 확산과 시각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이중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기존 문화예술운동이 예술가들의 창작활성화와 사회모순을 예술로 형상화하는 것에 중심을 기울였다면, 사진교실은 예술가들과 교사들의 사회적 역할의 전환과 예

17) 미디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서강 커뮤니케이션 센터 미디어교육실, 1994, p46.

술수용자들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의 강화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이루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이해 이 과정은 사진을 이루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 환경과 미디어 환경의 이해를 통해 장애인이 발언하고자하는 제안을 시각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고의 전환을 위한 시간이며,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는 미디어 생산자의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다. 특히, 교사와 교육생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은 교사들에게는 모두 구성을 할 수 있는 탐색의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생들에게는 앞으로 배우고 생각하게 될 장애인 문화지평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시켜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 장애인의 문화지평을 넓히기 위한 모색이라는 점에서 사진 촬영 기술만을 가르치려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은 사진기라는 도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원리와 기술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촬영에 사용되는 기술과 표현방법에 대한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체적인 장애 유형의 파악은 단순한 교육생과의 친밀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 교육 중심의 잘못된 사진의 오해를 풀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고의 개념을 찾아가기 위한 시간이다. 다양한 예술교육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새로운 기획과 교육프로그램의 교사 활동을 위한 새로운 실천과제인 셈이다.

3.3.1. 사진을 이루고 있는 미디어 환경

미디어 환경을 이루고 있는 사진 영상언어에 대한 영상언어문법을 장애인에게 주어진 미디어 환경의 실제적인 범주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의를 통한 교육생들의 장애인 유형별 기술교육의 범주를 정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잘못알고 있는 기술 교육에서 벗어나 사진 영상 언어가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왜 중요한가? 에 대한 사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

- 아날로그와 디지털
- 수동카메라와 자동카메라의 특징
- 촬영과 편집권
- 복제와 일회성
- 사진은 사실이다. 라는 명제에 대한 고민

3.3.2. 포토에세이 만들기를 위한 기획 구성

사진 영상 언어를 통한 사고의 재구성을 유도하는

리터러시로 미디어 환경에서 기계적인 시각으로 구성 되어있는 시각체계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카메라의 구성 및 사진영상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소통과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저널과 다큐의 개념 파악
- 개념 미술과 개념 사진
- 기록과 예술
-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인식

주제에 접근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여 영상언어의 스키마를 자기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매개체를 통해 발언 하는 작업들은 방향과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고를 기획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모듈별 기획 구성안을 기준으로 객체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 분석하는 방법과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3.3.3. 장애 유형별 접근성을 위한 영상 테크닉

[표 2] 장애 유형에 따른 영상 테크닉

프로세스	장애 유형에 따른 영상 테크닉
촬영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촬영 시 카메라를 다루는 기술적 차이가 매우 크다.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는 하지만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유형별 촬영 방법을 익혀 대상과의 접근성 및 사진미디어접근성에 대한 능력을 함양해야한다.
편집	편집권은 장애인에게 사진을 만드는데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결과물	디지털 사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의 사진 테크닉의 향상은 디지털 결과물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본다.

장애 유형별 접근성을 위한 영상 테크닉 과정의 사진 리터러시의 목적이 장애인의 문화지평을 넓히기 위한 모색이라는 점에서 사진 촬영 기술만을 가르치려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은 사진기라는 도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원리와 기술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촬영에 사용되는 기술과 표현방법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체적인 장애 유형의 파악을 통한 기술교육은 비장애인 기술 교육 중심의 잘못된 사진의 오해를 풀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사고의 개념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다.

4. 사진 미디어리터러시 제언

미국 미디어리터러시 센터(Center for Media Literacy, CML) 테사 졸스 대표는 미디어 교육은 수많은 정보에 과몰입 사는 현대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각종 매체가 쏟아 내는 정보와 지식이 과연 옳은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능동적 정보 수용자를 양산하는 게 미디어 교육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런던대학 교육연구소에서 기호론과 언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군더 크레스(Gunther Kress)교수는 지식의 인풋(input)과 아웃풋(output)은 활자 일변도의 교육에서 탈피해 비주얼을 비롯해서 다양한 언어의 읽고 쓰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레스 교수는 활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비주얼은 개인의 상상력을 대신해 누군가가 이미지를 만든 것이라 설명하면서 영상은 활자보다 파워풀하고 결정적인 이미지나 이데올로기를 나타내고 있어 활자와 비교해서 전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자·시각 정보에 둘러싸여 자란 현대의 아이들은 사물을 이해하는 방법도 '활자 세대'와 다르다고 설명한다.¹⁸⁾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비주얼 언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육 현장에서 사진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신체적인 활동과 미디어 접근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어렵고 복잡한 영상 언어를 습득해야 할 사회적인 필요성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필요한 아날로그 방식의 선형적인 창의력과 시각교육의 사고 확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사진의 비용절감과 자유로운 사진을 표현 방법 이상의 문화 참여에 대한 소통으로서 미디어접근성 인 것이다. 특히, 촬영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의 편집권과 선택권은 미디어의 올바른 선택과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의지의 기술적 표현이다.

반면, 비장애인은 새로운 미디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의 대상도 넓어지고 있다. 디

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미디어 교육을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넘어 개인미디어의 생산 능력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미디어 생산에 익숙하고 친근해짐은 미디어를 이해하는 데에 큰 힘이 되어준다. 또한,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특정 내용에 대한 새로운 맥락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다양성이 공존할 바탕이 마련될 뿐 아니라, 해답보다 문제 해결의 방안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리터러시는 바로 이러한 정보 사회의 기대에 가장 부응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날로 급속하게 팽창해 가는 정보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들은 사회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고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의 주체적인 사고 능력과 현실에 도전하는 비판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정보는 모든 곳에 존재하며, 이를 습득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 지평에 대한 의지와 욕구의 변화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디지털 시대가 되어 가공된 사진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사진은 '진실'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오래된 사진의 본질적인 성격이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졌다.¹⁹⁾

이제, 장애인 문화지평을 위해 영상언어를 배우고 자하는 장애인에게 사진 리터러시는 단지 미디어를 다루기 위해 이해와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와 이미지를 읽고 해석하며 자유롭게 다루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신의 표현에 도구로 사용함과 동시에 미디어와 이미지가 유포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 미디어생산자, 비판적 미디어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을 위한 평생교육으로서 사진기반 미디어 리터러시인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선형적인 창의력과 디지털적 비선형 방식의 시각교육의 사고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리터러시의 사진미디어 방법론이다.

18) 스가야 아키코,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81.

19) 스가야 아키코,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204.

참고문헌

- 김기태 외 저, 『미디어교육과 교과과정』,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p6, p161
- 미디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서강 커뮤니케이션 센터 미디어교육실, 1994, p46
- 박은희 편저, 『디지털마니아와 포비아』,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7, p243
- 잭 라일·더글러스 메클로드, 강남준·강 태영 옮김, 『커뮤니케이션 혁명과 뉴 미디어』, 한나래 출판사, 1996, pp35-144
- 수잔 손탁, 『사진론』, 송 숙자 (역), 현대미학사, 1994, p272
- 스가야 아키코,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81, p187, p204
- 테렌스 라이트, 『사진이란 무엇인가』, 이주용 역, 눈빛, 2001, p12, p27